

한국 대표 관광지 500곳에 전남 41곳 선정

순천만습지 24위·구례 화엄사 48위·여수 오동도 72위 등

순천만습지를 포함한 전남 관광지 41곳이 한국 대표 관광지 500곳에 선정됐다. 전남은 다도해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백년의 시간을 간직한 역사 공간 등 다채로운 매력으로 한국 대표 관광지 목록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가고싶은 섬', '전남 방문의 달', '남도한바퀴' 등 전남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지 개발 사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여행전문 플랫폼 아놀자가 운영하는 데이터랩 아놀자리서치가 발표한 '한국 관광지 500'에 순천만 습지가 24위를 기록했다.

전남 관광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순천만 습지는 세계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 개체수의 절반이 찾아오는 서식지로 순천이 가진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가장 방문하고 싶은' 생태관광지 1위에 올랐고,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7년 연속 선정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어 구례 화엄사가 48위에 선정됐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화엄사는 수많은 문화재 외에

도 화엄매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또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여수 오동도(72위), 구례 노고단(77위), 순천만국가정원(83위), 광양 매화마을(87위), 담양 죽녹원(92위), 고흥 소록도(100위) 등이 상위 100곳에 이름을 올렸다.

오동도를 비롯한 상위 100위 관광지는 모두 각 지역의 '관광 1번지'다. 이번 순위 집계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블로그 등 주요 소셜미디어의 언급량(인기도)과 긍정 감성 비율(만족도)을 각각 50%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대표 관광지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순천 송광사(111위), 여수 향일암(123위), 순천 낙안읍성(146위), 여수 금오도(148위), 여수아쿠아플라넷여수(167위), 순천 섬암사(168위), 해남 대흥사(175위), 담양 관방제림(211위), 장성 백양사(227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240위), 목포해상케이블카(260위), 강진 다산초당(270위) 등이 300위 내에 올랐다.

아놀자리서치는 300위 밖의 관광지는 순위를 매



순천만습지 전경.

〈전남도 제공〉

기지 않고 '3rd'로 표기했는데, 강진 가우도와 나주 낙안읍성,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보성 녹차밭 등 22곳이 선정됐다.

한국 관광지 500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이 1위, 해운대 해수욕장 2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 롯데월드,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서울 경복궁, 서울 북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서울 덕수

궁, 제주 성산일출봉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66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도(64개), 경상북도(58개), 경기도(56개) 등 순이었으며, 광주시는 3rd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전일빌딩 245 등 2곳이 선정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I·에너지로 관광 날개” 도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전남도는 지난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제52회 전라남도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홍일성 전남관광협회 회장, 임춘임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홍일성 전남관광협회장의 기념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영상 격려사 등으로 시작해 전남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6 전남 선 방문의 해”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다짐하고, 내년도 대형 이벤트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의지를 높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상 격려사를 통해 “올 한해 전남 관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잘 잡았다’는 점”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마다 개성 넘치는 축제가 전국에 명성을 높였고 반값여행 같은 기발한 시도가 대한민국 관광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감사의 이야기를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공공구매박람회...지역 중기 판로 확대

50곳 참여...1대1 맞춤 상담·혁신제품 전시로 실질적 비즈니스 연계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9일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2025 전남지역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해 전남테크노파크, 광주지방조달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Open 혁신조달, With 전남미래’를 슬로건으로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50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전

년(40개사) 대비 규모가 확대됐으며, 우수조달제품, 친환경 제품, 혁신 및 창업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전시됐다.

특히, 전남지역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 구매 담당자들은 기관별 수요에 따라 참여기업과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업지원 및 공공구매 제도 안내 부스도 함께 운영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

한 것은 물론, 최근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동반성장 유공 표창 수상 등 공공조달 혁신과 동반성장 실현에 있어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021년 10개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된 박람회가 5년째인 올해는 동부권의 50여개 신규 업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전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권 우선되는 청정 전남 염전 만들자”

전남도, 생산자 워크숍 개최

전남도는 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천일염 생산자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의 염전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는 전문가를 초청해 천일염 생산자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생과 지속가능한 염전을 위한 노동인권과 법률 가이드 안내, 노동관계법과 현대인의 생활 건강 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천일염 생산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천일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워크숍 참가자들은 ‘인권이 우선되는 청정지역 전남’을 만들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더웠던 올여름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위해 애쓴 생산 어가와 근로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가공시설 지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일염 관계자 워크숍과 관계자 교육은 천일염 생산 어가의 인권 의식 개선과 전남지역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며, 현재까지 총 14회 실시, 800여명이 참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전남도, 내년 3월까지

전남도가 6일 “내년 3월까지 도·시군·민간 합동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합동으로 진행되며, 야생동물 매개 질병 확산 차단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이 병행된다.

특히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47곳과 야생동물보호구역 49곳, 생태경관보전지역 5곳, 건강원과 밀렵도구를 판매하는 철물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 및 섭취 행위, 울무와 밧 등 불법 엽구 제작·판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10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 뱀 1000여 마리를 불법 포획, 가공 판매한 나주의 한 건강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법행위 발견 즉시 시군이 나 전남도 환경신문고(128)에 신고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